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임연학
인쇄인 인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967-8133 FAX:965-0643

1998년 11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30호

수급조절위 세부운영규정 개정작업 수입자 선정농고 단체간 "이견"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개정이 관련 단체들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한약관련 단체들은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 25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의를 갖고 '운영규정' 개정을 협의했으나, 쟁점사항인 한약재 수입방법을 놓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한약도매협회등 유통 및 소비자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의가 결렬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95년 7월25일 만든 '한약재 품질및 유통관리규정'이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으로 바뀌어 따라 여기에 맞춰 이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 하지만 관련단체들은 수입자선정 및 입찰방법을 놓고 한 치 양보도 없이 대립을 벌

였다.

종전에 한약재 수입에 대해선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의수협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품목 및 수량을 배정하되 의수협이 이를 일괄수입해 단체에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약협회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유통및 소비자단체인 한도협과 한의협, 한약협, 약품조합 등은 품목 및 수량은 수급조절위원회가 각 단체에 배정하고 배정받은 단체가 특성에 맞게 수입자를 선정해 한약재를 들여올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유통및 소비자단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재를 재배하는 국내 생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품목 및 수량을 신중히 배정하

는 것"이라며 "어느 특정단체가 일괄 수입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약협회는 "수입량 배정은 위원이 소속된 단체에 균형있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며 "직접 수요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산자 단체에 대한 배정을 제외한다면 수입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지대의 대부분이 제조업체등 실수요자측에만 귀속하게 되므로 제도 운용상 생산농가보호 의미를 찾을 수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농촌에서는 약용작물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지난해를 수해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은 예년의 절반수준이지만 황기를 손질하는 농부의 손질은 분주하기만 하다.

한약재 총 중금속 허용치 개별 중금속기준으로 전환

현재 총량 기준으로 되어 있는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이 개별 중금속 기준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약재 중금속 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한약재에서 검출되는 중금속을 필수 중금속과 유해중금속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약재 중금속 기준을 현행 총량

기준에서 개별기준으로 개선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한약재의 중금속 검출원인 조사도 병행, 토양 수질 대기 오염등 환경오염과 한약재의 유해중금속 검출의 상관관계와 한약재 가공이나 제조과정에서의 중금속 오염 및 흡입가능성등도 조사한다.

중금속 허용치 설정은 한약재의 기원(광물성, 동물

성, 식물성)에 따라 허용치를 차별화하며, 특히 식품에서의 중금속 허용기준치와 비교연구를 벌여 한약재 특성에 맞는 허용적정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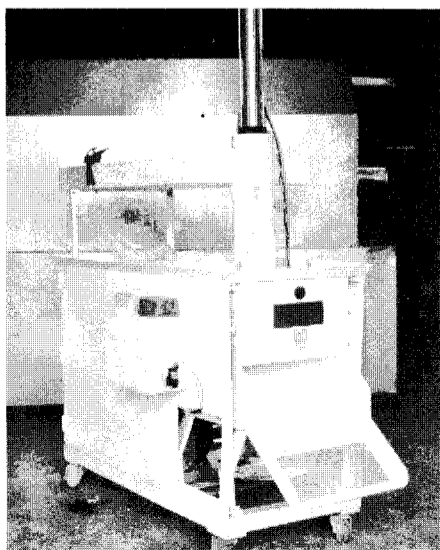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17일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농진청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대책위의 역할을 분담해 농산물 단계에 선 농림부와 농진청이, 의약품단계에선 복지부와 식약청이 각각 중금속 관련 관리와 대책방안을 연구해 금년말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 면 안 내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한약관련 규제정비 방안 3면
- 국정감사 이모저모 3면
- 유통시세정보 4면
- 재배기술정보 5면

생약기공 자동화 설비업체

한방업계 최초 Q마크획득



♣ 원반기 자동형

본 기계는 생약 절단기로서 감초, 황기와 가늘고 긴 뿌리 종류의 한약재를 대각선 모양으로 절단하며 당귀, 백출, 복령 등 둥근 모양의 약재 및 열매등은 에어(AIR)실린더가 부착된 투입구에 넣은 후 전자식 스위치를 작동해서 자동으로 압축을 하므로 작업인원 감소 및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균일화를 이룰 수 있어 능률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으로 원기절감에 이바지함. 제약 및 식품회사에 적합.

특징 물이 절단할 때만 자동으로 공급됨으로서 잔류약재가 전혀 없이 절단, 약재부스러기가 전혀 남지 않는다.

설치면적	1500×700×2,000	중 량	240kg 생산능력: 천공기준 1일 2천근
전 원	220V/110V/380V 가능	모 타	2P×1HP×1, 2P×1HP×1

♣ 생산품목

- 농,추출기 라인/ · 직각 절단기/ · 원반기 · 자동원반기 · 분쇄기 / · 자동 칼 연마기/ · 숙지황 제조라인
- 숙지황 자동법제기/ · 제환라인/ · 녹용절단기/ · 녹각절단기/ · 녹용 술 주입기/ · 황기, 감초 절단기
- 건재포장기/ · 건재 자동 법제기/ · 세척기/ · 탈피기

태성제약기계

본사:(053)588-8916/7, FAX:(053)356-6070
영주영업사무소:(0572)636-1717, 호남영업사무소:(0657)323-0207

※전화주문을 받습니다.
하자가 있을시는 언제라도 책임지겠습니다.